

화상(火傷)에서 얻은 지혜 (상)

조대근 (부산 수영구 광안4동)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배운다. 이웃집 아이의 울음소리에서, 조용히 내리는 이슬 비를 보면서, 등돌린 친구의 매정함에서...
듣고 보는 것 모두가 공부다. 느끼고 생각하면 모두가 스승이다. 공부라고 생각하면 공부 아닌 것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늘 쉽게 지나친다. 이것을 깨달은 것은 40대 중반이 돼서였다. 긴 시간을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그것을 깨달았다 는 것은 정말 다행이다.

2005년 7월 21일, 한의원을 개원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으니,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은 일이었다. 10년 간 한의사로서 환자들을 어떻게 돌봐왔는지, 그런 가운데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하는 수행은 또 어 댔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지금 다니고 있는 부산 새말귀선원에서 열흘 뒤 열리는 3박4일 용맹정진에 참가할 계획도 세웠다.

그날 오전 10시경 나는 탕전실에 가서 가스 불 위에서 끓고있는 한약 용기들을 살펴 보고 있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와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한약을 달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황토 용기에 약을 삼베에 넣지 않고 그대로 달이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결론을 내리고 한약을 달고 있었다.

그런데 용기 하나가 가스레인지의 삼베 이 위에서 한쪽으로 조금 치우쳐 놓여 있어 용기를 살짝 들어서 정확한 위치로 옮겨 놓으려고 힘을 주는 찰나, "퍽!" 하고 용기가 깨지면서 끓고 있던 한약 액이 무릎 위쪽에 서 발까지 흘러내렸다.

"아야!" 저절로 비명이 나왔다. 한의원에서 항상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바로 한복 바지를 벗고 화장실로 가서 수돗물을 틀고 "김 선생!" 하고 다급하게 직원을 불렀다. 양동이를 가져오게 하고 호스를 수도에 연

결시켜서 물을 화상부위에 뿌렸다. 그래도 열기가 내리지 않아 양동이에 물을 받은 다음 다리 전체를 담가보았다.

그리고 침을 가져오게 해서 가장 붉은 부위에 침을 놓기도 하였다. 다급한 순간이었지만 스스로 생각해도 침착했다. 오히려 한 의원 직원이 긴장을 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화상 부위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계속 화끈거리면서 더 심하게 번져 올라왔다. 참아보려고 했지만 참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다. 참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통증이 심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아야!" 하는 신음소리가 절로 나왔다.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침대에 누워서 거즈로 생리식염수를 문혀서 열기를 식히고 수액주사를 맞았다.

그 사이에 몸이 말뼉 떨어지고 한기가 엄습하기 시작하였다. 응급실 담당 의사는 하반신 '무릎 약간 위부터 발까지 전신의 10%, 2도 화상' 이라고 진단했다.

가족들에게 연락해 오기를 기다리는 사이, 약 기운이 들어가서인지 조금 있다가

한약 달이던 용기 깨지며 다리에 화상 큰 부상에도 수행의 힘으로 침착히 대처 입원 치료 동안 용맹정진 생각만 간절

"김 선생, 119 불러요! 안 되겠어. 응급실로 가야 되겠다." 119 구급차가 오면 가기 쉽게 대기실 소파로 가서 앉아 있기로 했다. 다행히 슬리퍼를 신고 있어서 발바닥에 는 끓는 한약 액이 스며들지 않았다.

천천히 걸어서 대기실로 가서는 다시 침을 화상부위의 가장 심한 곳에 자찔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마스크와 눈罩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화상에 침을 놓으면 흉터 없이 잘 낫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한 번도 화상치료를 해본 적은 없었다.

119 구급차가 와서 119 대원들이 가져온 소독액으로 소독도 하고 화상거즈를 바르는 등 응급처치를 받고서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올랐다. 가는 도중에 통증이 시작됐

오한은 진정되기 시작했고 화상부위의 화끈거리는 통증도 진정되기 시작하였다.

화상전문 병원으로 옮길 것인지 그냥 처음 온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을 것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치료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화상부위가 너무 넓어서 일단은 하루 입원해보기로 하였다.

입원을 결정하고 그날 하루는 약에 의존해서 편안하게 쉬었다. 병상에 누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화두 참구를 하거나 수식관을 하였다. 숨을 코로 들이마신 다음 화상부위로 호흡을 내린다는 생각으로 집중해서 호흡을 하였다. 그 순간 화상을 입었을 당시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그동안의 수행에서 나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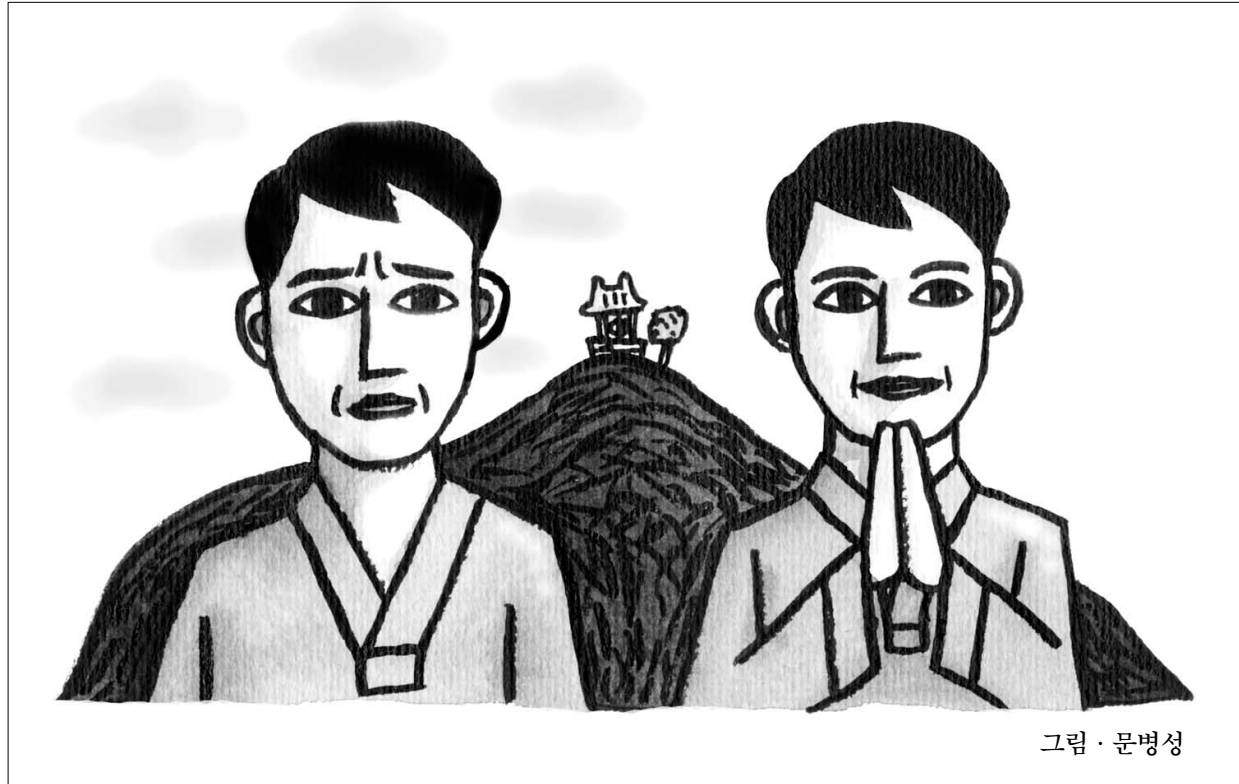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음을 깨닫게 됐다. 그러면서 환희심이 느껴졌다.

한의원 개원 2년 전부터 새말귀선원을 다녀오니 벌써 선원에 다닌 지도 12년이나 됐다. 그 동안 금요설법, 토요철야정진, 매년 여름겨울 3박4일 철야용맹정진 등을 통해서 수행이랍시고 했던 것들이 많은 도움이 이 된 것이다. 따로 호흡 수련을 한 것은 아니지만 화두참구를 하면서 호흡은 저절로 따라왔던 것 같다.

수행의 최종목적이 생사문제의 해결이 라고 하신 새말귀선원 선원장 총담 이항우 선생님 말씀이 떠올랐다.

어떻게 보면 화상 같은 일을 당해서는 그 려처럼 판단을 해서 해결을 나름대로 할 수 있지만 생각이 걸린 그러한 일을 당할 때도 담담하게 대처하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지금 기분이야말로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편안했다.

어쨌든 오랜만에 쉬면서 마냥 누워 환자 노릇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듯 호텔에 와 있는 듯하였다. 앞으로 스스로 고통과 직면 해야 하는 폭풍전야 같은 날이었다고나 할

까? 연락이 닿았는지 선생님께서도 와주셨고 도반들과 동료 한의사들도 문병을 와 주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가는 데 과연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내주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얼얼밖에 남지 않은 용맹정진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사실 용맹정진(勇猛精進)은 나에게 '마약' 과도 같은 행사다. 예전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심리의 기복이 들쭉날쭉 했었는데, 금요설법과 토요철야정진을 하고 나니 월요일까지는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화요일부터는 마음이 다시 산란해지고 괴로움이나 즐거움에 파묻히기 시작해 수요일까지 이틀간은 정진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러다가 목요일쯤 되면 '내일 금요일까지' 하는 생각이 조금씩 평정을 되찾고 금요일과 토요일 다시 설법을 듣고 철야정진을 하고 나서는 월요일까지 다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흐름이 몇 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화요일과 수요일의 산란한 마음은 찾아들어 거의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작곡처럼 담겨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보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인편(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일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합, 선착순 8명)
-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탈종공고

- 승적번호 : 5947
- 법 명 : 해월(최기섭)
- 주 소 : 전남 목포시 유달동 산 1번지

상기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28일

대한불교법회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보성정사
- 법 명 : 도천(이병근)
- 주 소 : 경주시 강동면 오금 1리 491

본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하는 바입니다.

대한불교법회종 총무원장 법하

고품격의 3000배를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부산 3000배 용맹정진

- ◎ 500만 배 성만하며 체득한 절수행 비법 노하우 모두를 완전 공개 하며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 소리에 맞춰 일사 분란하게 절 진행
- ◎ 매 타임마다 누구나 꼭 알아야하는 절수행에 관한 환희심나는 소참법문이 이어집니다
- ◎ 삼천배 수행전에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교육을 통해 누구나 완벽한 호흡처리를 하게 됩니다
- ◎ 허리 무릎 아픔이 저절로 없어지고 머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진 최상의 컨디션으로 갈수록 생생해짐을 누구나 100% 체험하게 됩니다
- ♣ 일시 : 2006년 9월 9일 (매일 둘째주 토요일 10/14, 11/11, 12/9)
- ♣ 시간 : 저녁 7시 ~ 9시 절하는법 교육 저녁 9시 ~ 일요일 아침 7시까지
- ♣ 준비물 : 기도포(큰수건), 수건2매,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장 이상, 법복바지 2벌등

법왕정사 부산 금정법당

- ◎ 문의전화 051)583-7886 청견스님 011-9088-9449
- ☞ 오시는길: 지하철 1호선 두산역 7번출구 나오는방향 150m 남산자동차정비부 경우빌딩 4층

우주 에너지로 건강을 지킨다! www.chgg.co.kr

氣주입법

이재복 지음 2권 값 16,000원

우주에너지에 파동을 맞추면 누구나 氣를 방사할 수 있다. 생명에너지의 레벨을 높이면 몸이 더워지고 손에서는 전류처럼 자기가 흐르고 오라(Aura)가 증폭된다.

척추디스크 자연치유법

가정에서 끝난보정운동으로 끝난, 척추 바로 잡는다.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혈전등 혈관계통질환 치료를 98.8% (호주, 북한보고서)

MBC - TV (통일전망대 방영)
2005년 11월 22일

북한의 조선중앙 TV는 2005년 11월 14일자로 「반지와 팔찌만 차면 기적처럼 혈액이 정화되는 휴대용 혈액정화기를 과학영화로 소개했다. 혈관계통 질병치료를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햇빛을 쬐어주면 사할보다도 효과가 더 좋다는 내용이다.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받으실때 택배비 3,000원 부담하시면 책2권정가 16,000원을 보내드립니다.

도서출판 건강한세상 ☎ 1544-2181